

#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10. 25.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말고 속속히 나가세
-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4장 1~42절

**다 같이**

-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  
네게 주었으리라

\* 봉독 말씀이 긴 관계로 대표 말씀만 기재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전체 구절을  
찾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말씀 나눔

## 예수님께 배우는 전도 방법

## 인도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개처럼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당시 외간 남자나 여자를 함부로 만날 수 없던 시대에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여인은 복음 앞에서 변화되었고 자신이 사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의 복음 전파로 소외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의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도의 위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까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신 과정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오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지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미에서 보듯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먼저 교회에 찾아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빈자리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지?”라는 생각 또한 안일한 대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둘째, 사마리아 여인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것은 아주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요청이었는지 이 여인이 오히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즉,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어디 마음의 장벽뿐이겠습니까? 문화의 장벽, 신분의 장벽 등을 모두 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로마서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많은 장벽들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복음을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이 걸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가가셨고,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장벽을 허무시면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장벽을 무너트리고 어느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대하며 전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셋째, 영생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물로 시작해서 생수, 그리고 그 생수가 영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되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들의 생활 습관에 동화되어도 좋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영생의 길로 이끌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급한 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갈급함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인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으로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 여인에게 접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세심한 전도 방법을 배우시다. 불신자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온전히 가르쳐 구원 시킬 때, 그 사람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전도의 방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듯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눔

다 같이

- 1 평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나요?
- 2 내가 사용했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을 비교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중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 1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 2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도록
- 3 질병과 경기 침체, 전쟁과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 4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